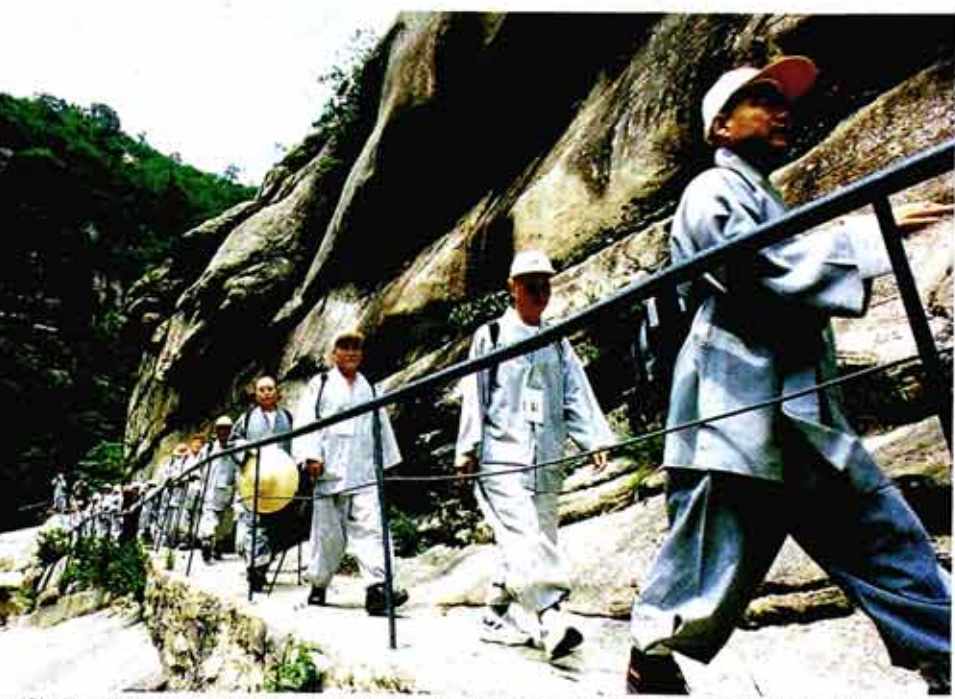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법정산 토종 홍화씨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완조과 품종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6월 2일~5일 1천1백여명의 불교도들이 금강산 순례에 나섰다. 옥류동 계곡을 지나 구룡폭포를 오르는 스님들의 모습.



◇만물상의 웅장한 모습. 깎아지른 층암절벽과 갖가지 모양의 기암괴석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법기보살이여! 이 민족 일깨우소서

불교도 1천1백명 금강산 성지순례

**혼적만 남은 신계사터서
순례단은 너나없이 합장
'석가모니불' 부르며 탑돌이
반세기만의 법회 '장엄'**

1천1백의 불교도들이 금강산에 올랐다.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 아직은 먼 바다를 여물 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대금강호는 3일 오전 6시 북한의 장진항에 닿을 내렸다. 주체사상탑이 보이고 몇 척의 군함이 정박해 있다. 풍포가 사는 곳이지만, 어릴 수 없이 낯선 풍경으로 다가온다. 멀리 동고길 아이들이 줄 맞춰 걷고 있다. 순례단은 2개조로 나눠 구룡폭포 코스와 만물상 코스를 번갈아 올랐다.

금강산에서의 첫 번째 행사는 신계사터 법회. 신계사터는 구룡폭포 코스의 초입에 있다. 519년 신라 법흥왕 때 보운조사가 창건해 법종을 받들어온 한국전통의 와중에서 폭격으로 전소됐다. 3층석탑과 만세루의 돌기둥이 남아 전경의 상채를 쓰다듬고 있다.

무너져 혼적만 남은 절터.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송광사 방장은 신계사터에 도착하자마자 법회 앞드러 3배를 올렸다. 다음은 스님의 계승이다.)

목탁을 친 화엄스님(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은 숙연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어찌 첫 법회의 감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와 더불어 금강산 4대 명찰인 신계사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이 아랐습니다."

한 불자는 "아버지께서 늘 오고 싶어하던 곳인데, 오늘 제가 대신 왔습니다. 향이라도 피웠으면 좋았는데..."라며 울루수 하나를 놓고 절을 올려 주위 사람들의 눈을 적셨다. 신계사터에서 구룡폭포까지는 약 5km. 구룡폭포 구역은 외금강의 산악미와 함께 계곡미를 대표하는 곳이다. 세존봉과 옥녀봉의 기암괴석들과 구룡폭포 비룡폭포 옥류담 상팔담 등 폭포와 많은 소(沼) 등이 산굽이를 돌 때마다 나타난다.

깎아지른 절벽에서 힘찬 물줄기를 쏟아내는 구룡폭포. 폭포 길이 84m. 우회소리와 부서져 하얗게 흩날리는 물안개가 주위를 휘감는다.

구룡폭포 위 불쑥 튀어나온 바위를 자세히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다. 은은한 눈빛으로 폭포를 굽어보고 계신다. 오른쪽 절벽엔 1919년 해강 김규진의 글씨로 새긴 길이 20m, 폭 2.8m의 '彌勒佛'이 선명하다. 그대로 도량이다. 봉단의 아픔을 폭포수로 씻어내고 통일외 새 세상을 열겠다고 서원하는 순례객들의 합창배례가 이어졌다.

만물상 코스는 금강산의 산악미를 대표하는 구역이다. 층암절벽이 이어지고 기암괴석이 갖가지 모양을 보여준다. 내금강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지은 만상정과 장수바위를 지나면 삼선암과 귀암만이 순례객의 눈길을 모은다. 만상정에서 만물상을 한눈에 바라보는 천선대와 망양대까지는 3km 남짓한 거리지만 매우 가파르다.

망양대에 오르는 곳에 서있는 북한의 안내원에게 말을 건넸다. "남한 사람들이 금강산에 오는데, 북한 사람들도 설악산에 와야지요." "통일이 돼야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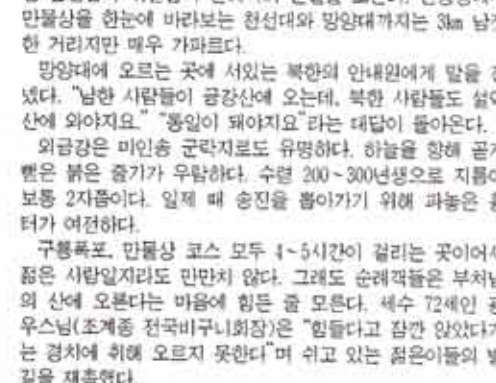
외금강은 미인송 군락지로도 유명하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붉은 줄기가 우람하다. 수천 200~300년생으로 지름이 보통 2자쯤이다. 일제 때 송진을 뽑아내기 위해 파놓은 흉터가 여전하다.

구룡폭포, 만물상 코스 모두 4~5시간이 걸리는 곳이어서 젊은 사람일지라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순례객들은 부처님의 산에 오른다는 마음에 힘든 줄 모른다. 세수 72세인 장우스님(조계종 전국비구위원회)은 "힘들다고 잠깐 앉았다가는 경채에 의해 오르지 못한다"며 쉬고 있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재촉했다.

순례단 가운데 최고령자인 김귀순보살(86. 부산 영도구)도 "산사의 법회는 다 좋아하던 몸"이라며 일장사 산을 올라 힘찬 박수를 받았다.

4일 저녁 8시 현대금강호가 서서히 남으로 방향을 틀었다. 갑판에 서서 장전함을 바라보던 순례객들이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인다. 장전함의 불빛이 하나 둘 늘어나더니 이내 침침 작아진다. 풍경잡사소 앞에 차렸자세로 서 있는 북한군인의 모습도 어둠에 묻힌다.

금강산=정성은 기자(swjung@buddhopia.com)



◇신계사터의 만세루 돌기둥과 3층석탑. 불자들은 이곳이 통일발전 성지로 복원되길 기대하고 있다.

"법계 장엄한 금강산이여"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금강산 순례 계승



"효봉스님이 독도하신 데가 바로 이곳 신계사터에 내 뿌리도 여기에 있는 셈이지. 가을이 깊어질수록 보너 너무 애처로워요. 남한에 있었으면 탐은 물론 옛모습을 찾을 수 있었을텐데..."

효봉스님의 손상과 보성스님(송광사 방장)은 신계사터에 도착하자마자 법회 앞드러 3배를 올렸다. 다음은 스님의 계승이다.

금강산은 세계적인 명산이다. 중국사 탐승도 彌生高麗國하여 一覽 金剛山이라는 애절한 원을 새겼다. 화엄경 보살주처품에는 법기보살께서 1만2천의 권속과 함께 반야경을 상주 설법하시는데 도량이라 하였다. 신계사는 금강산 용화사(통영)와 함께 당래세(當來世)에 용화회상이 되어 삼회도인(三會度人)할 때 제일회가 되고 통천총석으로 기동을 삼아 마복보전을 지어 삼선인(上善人)을 제법할 도량이라는 설도 전해 내려온다.

法界莊嚴金剛山이여 願一見之平生心이라

수미現開別無事하니 萬載松風千鐘月이로다.

법계를 장엄한 금강산이여
경생 동안 한번 뵈면 그 마음 간절하니

오늘에 보고 들으니 별 일이 없구나.
일만 골짜기에 술바람 시원하고
일한 봉우리에 달이 솟아 밝게 비칠 따름일세.



◇현대금강호 선상에서 행해진 통일가원대법회. 오른쪽의 석가모니 금동좌상은 고산스님이 가을에 방북하면 북한에 전달될 계획이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방생법회. 각 종단 대표가 현대금강호 선상에서 바다장어를 바구니에 담아 풀어주고 있다.

◇성타스님(불국사 주지): 무엇보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신계사를 참배한 것이 기쁘다. 반세기의 긴 시간이 백도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불제자로서 50년만에 찾아 예를 올렸다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 어서 통일이 되기를 기원한다. 불제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도 통일운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우스님(조계종 전국비구위원회 회장): 이번 순례는 법기보살님을 모시고 1

금강산순례 소감

만2천 봉우리와 불교도가 어울어져 병행한 장엄한 법회였다. 기암괴석과 맑은 물빛은 화두에 다름 아니었다. 멀리 바다를 돌아 성지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50년 단절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남북의 불교를 잇는 불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삼 느꼈다.

◇총지회(불교 총지회 총리위원장): 불교는 남북을 화합시킬 수 있는 지력을 지니고 있다. 분단된 가운데서도 남북 동포들의 생활과 문화의 통일성은 불교에 있다. 멀리 배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머지않아 육로로 오고가는 날이 올 것이다. 이번의 순례로 남북불교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지성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신계사뿐만 아니라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등에서 남북의 불자들이 합동으로 법회가 병행되기를 바란다. 금강산뿐만 아니라, 백두산 묘향산도 찾아 참배하기를 조속으로 기도하자.

◇장종술(경주 흥원심인당 신도): 금강산의 절경을 보다니 꿈만 같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후손들에게 이대로 물려주어야 한다. 권의시절이 부족해 불행하기도 했지만, 금강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